



2022학년도 결핵검사 안내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
결핵은 법정 감염병으로서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에서의 결핵환자 발생 시 확산·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결핵환자의 신속한 발견 및 사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. 이에 2학년,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결핵검사를 실시합니다.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결핵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 또한 결핵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시어 자녀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

1. 검사일시 : 2022년 7월 14일(목) 08시 30분부터 -

- 검사일에 결석 시 **개인적으로 검사를 해야하므로 꼭 등교합니다.**

2. 검사방법 : 검진차량이 학교를 방문하여 디지털 흉부 X-선 촬영

3. 검사대상 : 2학년, 3학년 전체 학생

4. 시행기관 :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

5. 준비사항

- 당일 목걸이, 가슴에 뺏지 등의 금속성 부착물은 착용하지 않아야 합니다
- 검사복장(교복 안에 장식이 없는 **면 티셔츠** 추천합니다.)

6. 검사 후 결과 전송

- 정상인 경우 통보하지 않으며, **이상이 있는 경우에만** 차후 가정통신문(전화)을 발송합니다.
- 검사결과 결핵이 의심되는 학생은 보건소에서 2차검사(객담, 혈액)를 시행하여야 합니다.
- 검사 당일 부득이하게 결석한 학생은 **보건소에서 개별 검진**을 하도록 합니다.



★ 결핵이란?

- ☞ 결핵은 우리 몸 어느 곳이나 발생할 수 있는 전신의 병이나 폐에 균이 가장 잘 침범하므로 폐결핵이 많은 만성감염병입니다.
- ☑ 결핵의 감염을 막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감염병 환자의 빠른 발견과 발견된 환자가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.

★ 결핵의 감염과 발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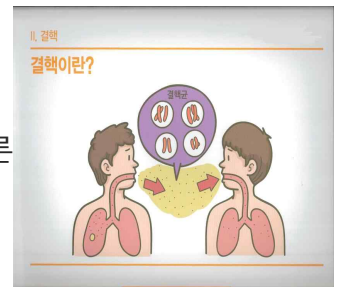
전염성이 있는 폐결핵환자가 기침, 재채기, 노래, 말을 할 때 결핵균이 공기 중으로 나와 떠돌아다니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숨을 들이쉴 때 공기와 함께 폐 속으로 들어가 증식하여 감염이 이루어짐.

- ☑ 평균적으로 환자와 가까이 접촉한 사람들의 25~30% 정도가 감염됩니다.
- ☑ 집안에 결핵환자가 있을 경우 어린이와 노인은 반드시 병원에서 진찰받아야 합니다.

★ 결핵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

- ☑ **평소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, 가래, 객혈(피 섞인 가래), 무력감과 미열, 호흡곤란, 가슴통증, 수면 시 식은 땀** 등의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결핵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- ☑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로 완치가가능하나 적절한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.(2017년 기준 치사율 16%)

★ 결핵 치료



결핵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
기침, 가래가 2~3주 이상 지속되는 것이다.



- ☑ 결핵약을 2주 이상 지속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전염성이 없어집니다.
- ☑ 최소 6개월 이상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약물복용이 매우 중요하며, 증세가 일시적으로 호전되었다고 해서 약물복용을 조기 중단하면 치료에 실패하거나 재발의 확률이 높아집니다.

★ 주의사항

- 1) **환기**를 자주하고 **손을 자주** 올바르게 씻습니다.
- 2) **면역력 높이기** : 균형잡힌 영양섭취와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합니다
- 3) **금연과 금주** : 흡연은 폐의 면역기능을 억제하고, 음주는 간기능을 악화시키므로 금연과금주 해야 함.
- 4) **마스크 착용** : 폐결핵의 경우 호흡기 전염병이므로 기침이 오래 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

2022년 7월 12일

전주한일고등학교장

